고교 야자 완전선택제·초중 통폐합 혼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침해 신고 등 잇따라…교사, 수업·학생관리 부담 커져

광주교육청 첨단중·중앙초 등 대상 설명회…동문·주민 반발

광주 초·중·고교 새학기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번 새학기부터 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학교)과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학생·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초·중학교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뒤숭숭하다. 교사·학부모·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가 줄을 잇는 가운데 동창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이후=광주시교육청 산하 민주인권교육센터에는 새학기에 접어들면서 정규수업(7교시) 이후 진행되는 보충수업(8·9교시)과 야간 자율학습의 '선택권' 침해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선 고교에서 정규 수업 뒤 획일적으로 이뤄졌던 보충수업(방과후학교)을 반드시 원하는 학생만 참가시키도록 한 이후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센터측은 이달 상담 사례 중 3건의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토록 학교측에 조치했다. "특정한 요일만 선택해 '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희망하는 학생만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는데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측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획일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혁신 방안' 을 마련했다더니 현장에서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당장,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고 국·영·수·과학을 위주로 한 획일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청이 권역별 거점학교를 두고 소수 선택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여태껏 구체화되지 못했고, 희망 진로·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다던 구상도 시기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예컨대 매월 한 차례 '보충수업·야자 없는 날'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로 만들어가겠다던 계획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준비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당구장과 노래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드림 데이'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 방침대로라면 "정규수업 뒤 8·9교시 보충수업은 받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에는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의 관리는 담임교사 몫이다. 담임교사들의 경우 정규수업 뿐 아니라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학습·관리 방안까지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왠 통폐합, 이견 터져나와=광주시교육청이 방학 기간에 내놓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학교 통폐합 후폭풍도 신학기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청은 ▲20일 첨단중 교직원, 천곡중 주민 설명회 ▲21일 광주서석초 교직원 ▲22일 월계초 학부모 ▲24일 천곡중 학부모 ▲28일 중앙초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설명회를 계획중이다.

교육청은 이달에만 20차례 가까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설명에 나서지만 진통은 한동안 불가피한 형편이다. 당장, 중앙초의 경우 통폐합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청은 애초 소규모 학교 급증으로 인한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등을 들어 중앙초를 통폐합 거론학교로 꼽은 바 있다.

중앙초 대책위원회는 광주교육현장에서 중앙초의 상징성과 도심공동화 현상, 지역동문과 교직원 등의 반대를 내세우며 통폐합 대신,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육성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첨단중으로 통합하는 광산구 천곡중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는가 하면, 율곡초 등으로 통폐합되는 삼정초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학교 통폐합도 지역주민, 학생·학부모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반갑다~ 프로야구" 봄 기운이 완연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1만여 관중이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정 간 총학선거…출구 없는 학내 갈등

조선대, 선거 무효 '승소'

전남대, 내달 4일 재선거

광주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학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 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지난해 11월 조선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모씨 등 2명이 당시 총학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측인 총학생회장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후보 자격 박탈 소송전과 투표율 미달에 따른 선거 무산으로 다음달 4일 재선거를 치른다. 전남대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특정 후보가 선거공탁금 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뜸	06:37	달뜸	00:47
해짐	18:44	달짐	11:19

봄 비

차차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흐려져비	6/15	보 성	차차흐려져비	4/12
목 포	차차흐려져비	6/12	순 천	차차흐려져비	5/14
여 수	차차흐려져비	8/12	영 광	차차흐려져비	2/14
나 주	차차흐려져비	3/14	진 도	차차흐려져비	8/12
완 도	차차흐려져비	7/12	전 주	흐림	4/17
구 례	차차흐려져비	2/14	군 산	흐림	3/16
강 진	차차흐려져비	5/13	남 원	차차흐려져비	1/14
해 남	차차흐려져비	4/13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6/11
장 성	차차흐려져비	3/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북동	0.5~1.5
	먼바다	동~남동	0.5~1.5	북~북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1.0~2.0
	먼바다(동)	동~남동	1.5~2.5	북~북동	2.0~4.0
	먼바다(서)	동~남동	1.5~2.5	동~남동	2.0~4.0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59	06:47
	--:--	18:47
여수	07:33	01:18
	19:33	13:25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4/12	2/16	5/15	4/16	6/13	5/14	4/15

또…대학 MT 참사

간호과 4년생 나주서 '빨리 먹기 게임'하다 숨져

대학교 MT(수련회)에 참여한 여학생이 '과자 빨리 먹기 게임'을 한 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12분께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의 한 리조트 1층 화장실에서 A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이모(23)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119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발견된 지 한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학과 MT에 참여하기 위해 선·후배, 교수들과 함께 리조트를 찾았다. 이날 MT에는 학생 360여 명과 교수 19명이 참석했으며, 저녁부터 장기자랑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씨는 과자와 라면 등을 빨리 먹는 '과자 빨리 먹기 게임' 도중 초코파이를 먹고 목이 막힌다며 화장실로 향했다. 이씨의 친구들은 4분가량 지나 이씨가 변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수차례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의 친구 김모(여·23)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씨는 'MT에 참여하지 않으면 취업할 때 필요한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교수의 말에 졸업반임에도 MT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숨진 이씨에게서 'MT에 가기 싫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교수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학 홍보실장은 "MT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수가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퇴근길 우산 준비…5~20㎜ 비

낮과 봄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 20일에는 광주·전남에 촉촉한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차차 확대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15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번 비는 21일 아침까지 오다가 개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예상강수량은 광주·전남 5~20㎜다. /전은재기자 ej6621@